‘효(孝:HYO)[1]’의 정치사상과 정책문제 해결의 방향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접근을 중심으로 -

박병련(남명학연구원 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I. 저출산·고령화 등의 국가 사회적 문제와 ‘효(孝)’사상

저출산·고령화가 국가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늦게 잡아도 2000년 경이라 할 수 있다. 2000년에 고령 인구 비율이 7%를 넘었고, 2010년에는 개별 시·도의 전 지역에서 고령 인구 비율이 7%를 넘겼다. 2017년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 사회에 진입하였고, 세계 제일(?)의 빠른 속도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서로 영향을 미치며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은 고령화와 함께 생산가능 인구 감소, 세대 간 갈등, 지방소멸이란 인구학적 위기를 초래’[2]한다는 지적처럼 저출산과 고령화는 깊은 관련이 있으며, 다양한 차원에 걸친 여러 분야의 문제가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다. 취업, 주거, 양육이라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뿐 아니라 노동생산성, 복지비용, 교육체계, 국방 등 국가의 경제와 안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총체적 국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 되고 있다.[3]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하고 2006년 처음으로 저출산 예산을 편성한 뒤 현재까지 대략 380조원을 넘는 재정이 투입[4]되었지만 저출산 고령화의 속도를 효과적으로 낮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단순한 출산장려정책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음도 입증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5]이 필요한 이유다. 이런 상황에 대한 다양한 진단과 대책들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으나 구체적 실천 여부와 얽혀 효과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대체로 ‘주거비 지원과 경력단절 예방지원’, 육아의 부부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의 확산‘, ’공동체와 정부의 육아 부담 분담‘ 등을 제시하는데, 결국 저출산 극복의 실마리

---

1) 다산 정약용은 「원교(原敎)」에서 “인간이 갖추어야 할 5가지 덕행, 즉 오교(五敎)는 효제자(孝弟慈)이다. 오교란 아버지[父]는 의(義)롭고, 어머니[母]는 자애[慈]롭고, 형(兄)은 우애[友]롭고, 동생[弟]은 공손[恭]하고, 자식[子]은 효도[孝]하는 것인데, 이를 줄이면 효제자(孝弟慈)이다. 여기서 자(慈)는 절로 하게 되는 것이므로 줄여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효제(孝弟)가 남는다. 그런데 효를 하는 사람은 제(弟)는 절로 하게 되기 때문에 줄여도 되므로 결국 효(孝)만 남는다. 따라서 오교(五敎)는 효(孝)다.”라고 밝혔는데, 이를 통해 볼 때 효는 일방향성이 아니 쌍방향성의 가치로 보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현대적 의미에서의 효를 영문으로 표현하면 김치(kimchi). 태권도(taekwondo), 불고기(bulgogi) 등과 같이 ‘HYO’로 표기해야 하는데, ‘HYO(효)’는 Harmony of Young & Old의 약자로 표현될 수 있고, 효는 ‘효도(Filial Piety)’와는 구별되는 의미가 된다. 김종두, “이 시대의 효,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II),(III). <효(HYO)칼럼>. 한국효단체총연합회. 2022-04-25, 2022-05-02. 참조.

2) 조선일보 주최, <아이가 행복입니다. 시즌 5>(2022. 9 .22).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축사 내용 중.

3) promisingfuture.tistory.com/entry/

4) 문봉수,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출산장려의 연계 및 해결 방안”. 한국효단체총연합회 주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15주년 기념식 및 효학술세미나』. 2022. 7. 2. p. 36.

5) <조선일보>, 2022년, 9월 29일 판. A5. 尹 “280조 쓰고 출산율 0.75명, 저출산 정책 전면개편“.

는 '가정의 행복'이란 것으로 귀결(歸結)된다.[6] 그런데, '가정의 행복'은 경제력과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조선 시대나 1950년대 이후, 특히 1970년대 100만 출산 시대의 경제 상황과 생활 수준은 2020년대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劣惡)했다. 이로 보면, 국가의 경제력이나 개인의 생활 수준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인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1960~70년대는 농업경제 중심의 허약한 경제적 상황에서도 다자녀를 기피 하지 않고, 오히려 가문 번성의 기반으로 인식하고 장려했던 것에는 가치관 등 문화적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가정은 합리적이다. 그 가운데서도 출산과 관련 있는 문화를 형성했던 데는 '효'와 '효도' 사상이 그 핵심에 있었다.

전통적인 유교적 문화에서 가장 큰 불효(不孝)는 "자식을 낳지 아니하여 후손이 없는 것"[7]이다. 이러한 효 사상이 동아시아 유교권 국가에서 열악한 경제적환경 하에서도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의 하나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근대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때, 산아제한정책도 함께 추진하여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가 도처에 걸려 있을 때도 딸만 있는 가정에서는 아들을 낳으려는 시도를 계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 고도의 기술사회로의 급격한 변화는 기존 가치체계의 동요를 가져왔고, 특히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와 함께 자유주의·개인주의 사상이 수용되고, '화폐(=돈)'로 표현되는 '이익(利)'이 모든 가치를 압도하는 사회가 되면서 '가족', '사회', '국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급격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고, 전통적인 '효'의 규범력은 급격히 쇠퇴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경제발전과 민주화라는 거대한 흐름은 사회체계와 가족관계, 그 가운데서도 부모-자식간, 부부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왔다. 대가족제에서 핵가족제로의 변화를 반영하는 법체계의 정비, 여성의 사회진출과 함께 독신 가구가 늘면서 저출산의 경향은 대세가 되었고, 이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 경향과 노령인구의 증가는 가족관계는 물론 사회관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메타버스(metaverse)라 표현되는 새로운 세상(New Normal)의 도래는 지금까지 통용되던 모든 기준과 상식이 바뀌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8] 이미 대표적 도시 주거 형태인 아파트의 설계에는 노부모와 동거한다는 개념은 사라진 지 오래다.

이처럼 시대의 변화와 맞물려 전통적 효 문화의 영향력은 급격히 약화 되었고, 국가 사회적 정책의 결정에도 효나 효도에 관한 가치체계는 거의 영향력을 상실했다. 이는 효와 효도 문화가 국가와 사회에 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단견(短見)에 따른 국가의 소극적 관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모든 사회적 가치를 화폐자본으로

6) <조선일보>, 2022년 9월 23일 판. 12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 관련 기사.
7) 『孟子』 <離婁章句> 上. 孟子曰 不孝有三 無後爲大.
8) 『최재붕의 메타버스 이야기』. (북인어박스, 2022).13~18.

환산하여 평가하고, 정치와 사회에 '법(法)의 관여(關與)'는 당연시하면서도 '도덕의 관여'와 신뢰자본(信賴資本)의 중요성을 헤아리지 않는 흐름에도 영향을 받는다.

물론 현대 법체계 속에서도 존속(尊屬)에 대한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등, 소극적 규정들은 있지만, 사회윤리의 기본가치로 또는 문화로 고양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은 잘 보이지 않는다. 2007년 7월, 효 운동 단체의 오랜 노력의 결실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된 것은 획기적인 일이지만, '골자는 빠진 형식만 갖춘 법률'로 실행을 담보하는 시행령과 자치법규의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완의 법률로 남아 있다.[9)]

그렇지만 제1조에서 "효를 국가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 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을 제시한 것은 효 사상이 우리 사회의 고령 사회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점을 선언한 것으로 이의가 있다. 다만 이 규정이 전통적인 봉양(奉養) 위주의 효 관념에 기초하고 있어 저출산 문제에 관한 통찰이 결여된 것은 반성해 볼 여지가 있다.

이 문제에 관한 실천적 논의는 이미 관련분야 전문가들에 의해 다루어져 온 것[10)]으로 여기서 이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더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本稿)는 부모를 봉양하는 '효양(孝養)'의 효에서 '사랑'의 효, '봉사'의 효로 의미를 확장하고, 그 대상을 '부모'에서 확대하여 '부모·어른·스승', '어린이·청소년·제자', '가족·나라·국민', '자연·환경', '이웃·인류'로 확대하는 관점[11)]에 동의하는 것에서 출발하려고 한다. 즉 가족 사랑을 기초로 이웃과 사회, 국가와 자연으로 확장하는 개념의 '광의적 효'의 교육은 저출산 사태의 심각성을 국민들이 근원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게 할 것[12)]이라는 데 동의하면서 '광의(廣義)적 효'의 역사적·사상적 근거를 찾아보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와 같은 문제의 해결에는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고, 그러한 정책 입안(立案)의 방향은 '효 정신의 실천은 가정과 국가에 이익이 된다(以孝爲利).[13)]'는 철학적 바탕 위에서 구상되고 입안(立案)될 필요성이 있음을 살펴보려 한다.

---

9) 박희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현황과 향후 추진 방안". 한국효단체총연합회 주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15주년 기념식 및 효학술세미나』. 2022. 7. 2.

10) 예를들면 한국효단체총연합회 주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15주년 기념식 및 효학술세미나』(2022. 7. 2.)에서 발표하고 논의된 것 등을 포함하여 한국효단체총연합회, 한국효학회 등에서 문제화하고 논의한 것 등.

11) 최성규, '기념사" 위의 효학술세미나.

12) 김종두, 『효 패러다임의 현대적 해석』 (명문당, 2016), 68-69.

13) 맹자는 義/利를 대립적 구도로 제시했으나, 『대학』은 以義爲利를 말하고, 『禮記』 <禮運 第九>에서도 "有禮以治之 則人義人利 由此而生"라 하여 대립적으로 파악하지 않는다. 광의의 효를 仁義의 핵심으로 보면, 以孝爲利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II. ‘효리천하(孝理天下)’[14]의 정치사상

1. ‘수기치인(修己治人)’과 효 사상

동아시아 유교권 왕조의 역사에서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정치사상과 ’효‘관념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효는 ’수신제가‘라는 ’수기(修己)‘의 영역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지만, 오히려 옛날의 뛰어난 정치리더들은 ’치국평천하‘라는 ’치인(治人)‘의 영역에도 깊은 관련이 있음을 인식했다. 이것은 수기와 치인이 분리되지 않고, 내성(內聖)을 외왕(外王)과 연속적으로 이해하는 유교의 관점에서는 당연하다.

동아시아에서 효 관념의 역사적 등장은 매우 오래지만, 갑골문(甲骨文)에는 나타나지 않고, 주(周)나라 대에 이르러 문헌에 자주 나타난다.[15] 효에 대한 알려진 고대의 문헌에는 <예기(禮記)>와 <논어(論語)> 등을 들 수 있다. <효경(孝經)>은 이로부터 약 삼백 년 후인 한(漢)나라 초기에 출현했는데, ‘효리천하(孝理天下)’를 선언하고 있다.

고대인의 효 관념은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죽음의 관념과 결합하여 조상숭배의 관념이 되었고, 또 그 원리가 되었다.[16] 조상숭배는 ‘가문’을 중시하고, 자손 번성과 입신출세로 조상의 혈통을 잇고 명예를 높이는 것이 효도의 중심으로 자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신체발부(身體髮膚) 수지부모(受之父母) 불감훼상(不敢毁傷) 효지시야(孝之始也), 입신행도(立身行道) 양명어후세(揚名於後世) 이현부모(以顯父母) 효지종야(孝之終也).”[17] 와 같은 <효경>의 구절은 1950~60년대까지도 널리 많은 사람 들이 외울 수 있었다.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잘 건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여 부모와 가문을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 효도라는 것은 당시 사회의 합의된 가치관이었다. 동시에 자녀를 많이 출산하고, 열심히 노동하여 부모를 잘 봉양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장려하고 칭찬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 후손을 두지 못해 대(代)를 잇지 못하는 것은 ‘큰 불효’로 알았고, 부모 봉양을 소홀히 하는 자식은 사회적으로 지탄(指彈) 받았다.

사실 부모-자식 사이의 효 관념은 동서고금을 관류(貫流)하는 보편적 도덕 가치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동아시아 유교적 사회가 매우 강조하는 덕목이지만,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도 사회구성의 기본윤리로 작동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동아시아의 도덕적 사유를 지배했던 유교 경전과 <불경(佛經)>, 서구의 도덕적 사유를 지배

---

14) 원래 ‘효치천하(孝治天下)’가 적절하나, 당나라 황제의 이름이 ‘이치(李治)’였던 까닭에 유사한 뜻의 리(理)로 바꾼 것이다. 황제(당 현종)가 <孝經序>에서‘孝理(治)天下’를 천명하고, 이후의 왕조들이 계승했다. 명(明) 태조 주원장(朱元璋)은 ‘이효치천하(以孝治天下)’를 앞세운 대표적 군주다. 『明太祖實錄』 卷49. 참조.

15) 孔德成, “孝란 무엇인가”.『孝思想과 未來社會』,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5. 118쪽.

16) 高橋 進, “孝意識의 歷史的 變遷과 現代에 있어서의 變容”. 『孝思想과 未來社會』,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5. P. 104.

17) 『孝經』 <開宗明義章>.

했던 <성경(聖經)>에서도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즉, 가족적 차원이나 지역 공동체 차원의 윤리로서의 효는 기독교와 불교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성경(聖經)』, 특히 <구약(舊約)>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은혜에 보답하라고 가르친다. 불효에 대한 징벌도 엄격하다.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는 죽이고, 부모를 조롱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그 눈을 까마귀가 쪼게 하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로 주며,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녀는 고발하여 돌로 친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18)]

불교의 경전인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은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설명하고, 공순(恭順)하지 않거나 봉양을 소홀히 하고, 불량한 친구를 사귀고 허망한 일을 저지르며, 형제 사이에 불화하여 싸우고 욕설하는 것 등을 불효의 사례로 지적한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이 "효라는 것은 내가 나를 수신(修身)하는 일이다."[19)]라 하고, 형병(邢昺)이 "효가 모든 행위의 으뜸이며, 오교(五敎)의 요체이다."[20)]라 하며, 공안국(孔安國)이 "효경이란 것은 무엇인가? 효는 사람의 지극한 행실이요, 경(經)은 한결같아 변함이 없는 것이다."[21)]라 한 것은 수기(修己)에 요점을 둔 것이다.

그런데 자식의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는 유교의 경전인 <논어>에도,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 '자(慈)'를 언급한 경우는 거의 없다. 이처럼 '자애(慈愛)'는 인류 외에도 거의 모든 동물이 본능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천륜(天倫)이라 할 수 있지만, 자식의 보모에 대한 '효경(孝敬)', '효양(孝養)'은 인류 외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 인륜(人倫)에 가깝다.[22)] 다른 말로 하면 '효'는 본능적이기보다는 역사 문화적 맥락 속에서 또는 삶의 형식 속에서 보은(報恩)과 수양(修養)이 강조되면서 도덕적 가치로 정립된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즉, '자애'는 국가권력의 개입 없이도 유지될 수 있는 원초적 성격이 강했지만, '효경(孝敬)'이나 '효양(孝養)'의 사회화에는 교육을 포함한 일정한 수준의 국가개입은 필수적이었고, 가정과 사회의 건강한 질서유지에 중요한 축으로 인정되었다. 국가적으로도 '불효죄(不孝罪)'는 중죄(重罪)로 처벌되었다. 그러나 가르치지 않고 죄 주는 것은 문제가 많음을 인지하면서 효에 대한 교육과 사회화는 정치와 행정의 중요한 방침으로 기능했다.

유교를 국시(國是)로 한 조선왕조에서도 '무지(無知)한' 백성들에게는 효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행정적 조치를 지시하고 있었다.

사람의 자식으로 부모가 살았을 때는 효성을 다하고, 죽어서는 슬픔을 다하는 것은

---

18) 池敎憲, "不孝란 무엇인가" 『孝思想과 未來社會』,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5. 210~213.
19) <大學公議>. 孝者 吾之所以修身也
20) <孝經注疏序>. 孝經者 百行之宗 五敎之要.
21) <古文孝經序>. 孝經者何也? 孝者 人之高行 經 常也.
22) 옛날에는 까마귀가 그 어버이를 섬기는 것으로 믿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천성(天性)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직분(職分)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이다. 고려 말기에 외방(外方)의 무지(無知)한 백성들이 부모가 죽으면 도리어 간사한 마음으로 즉시 그 집을 무너뜨리고, 또 부모가 거의 죽어갈 때에, 숨이 아직 끊어지기도 전에 외사(外舍)로 내어 두게 되니, 비록 다시 살아날 이치가 있더라도 마침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장사지내는 날에는 향도(香徒)들을 많이 모아서 술을 준비하고 풍악을 베풀기를 평일과 다름이 없이 하니, 어찌 유속(遺俗)이 아직까지 없어지지 아니하였는가. 아아 사람은 진실로 각기 상도(常道)를 지키는 천성(天性)이 있으니, 누가 그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리요마는, 다만 오래도록 습속(習俗)에 젖어 이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지금부터는 유사(攸司)가 나의 지극한 마음을 몸받아 교조(敎條)를 명시(明示)하여, 가가(家家)로 하여금 구습(舊習)의 오점(汚點)을 환히 알도록 하여 자신(自新)해서 인효(仁孝)의 풍속을 이루게 할 것이다. 만약 혹시 고치지 않는다면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은 엄격히 금지할 것이다.[23]

세종 14년(1432) 6월 9일,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를 편찬하고, <서(序)>와 <전(箋)>문을 올렸는데 세종의 성치(盛治)에도 부모에게 패역(悖逆)하는 현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국가사회의 도덕적 기강을 정립하기 위한 대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전통 시대 유교적 사회에서도 충신, 효자, 열녀는 당연한 현상은 아니었던 것이고, 『삼강행실도』의 편찬은 국가정책으로 '충효'에 가치를 두는 정책 기조를 실천으로 보여주는 프로젝트였다.

이는 효를 국가정책의 핵심원리로 수용하는 사례인데, 효 사상을 정치의 근본 실천원리로 삼는 것은 유교권 왕조국가의 특징이었다. 특히 조선왕조에서 효와 효도는 가장 핵심적인 국가 사회적 어젠다(agenda)로 기능했다. 효제(孝悌)를 중심으로 한 유교적 가치체계가 일상생활에서 존경받고, 칭찬받는 언행(言行)을 결정했다. 그 가운데서도 '효제충신(孝悌忠信)'과 '예의염치(禮義廉恥)', '봉제사(奉祭祀) 접빈객(接賓客)'과 같은 다양한 도덕적 행위명제(行爲命題)들이 '가치 있는' 일상(日常)을 규정했고, 국가권력과 향촌의 문화 권력이 가치 있는 행동들을 평가하고 보상했다. 효자에게는 미곡(米穀)으로 직접 포상하기도 했고, 복호(復戶)하여 세금과 부역을 면제하기도 하였으며, 정려(旌閭)를 내려 가문을 명예롭게 하기도 했다.

효치천하(孝治天下)를 정당화하는 전제는 '조상과 가문의 명예를 존중하고 계승하며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孝子)은 공동체나 이웃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는 역사적 경험의 결과로 구성된 것이다. 그런 사람은 반역(叛逆)이나 패륜(悖倫)을 저지르지 않았고, 가정과 사회의 화목을 일구어내며 국가에 충성했다는 역사적 근거들을 전제로 국가가 이런 행위에 대해 평가하고 보상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다만 조선 후기에는 주자학(朱子學)의 번성과 맞물려 상례(喪禮)와 제례(祭禮)에 지나치게

23) 『世宗實錄』 44권, 世宗 11년 4월 4일 기묘(1429년).

비중을 두어 효의 본의(本義)를 망각하기도 하고, '효'를 수신제가의 개인적, 가족적 차원의 도덕으로 이해하여 자녀의 부모에 대한 복종이나 봉양(奉養)을 강조하고, 효가 치국과 평천하의 원리라는 점은 크게 유의하지 않았다.

2. 왕도정치(王道政治:좋은 정치)의 실천 원리로서의 효

동아시아 유교권 왕조국가(王朝國家)는 '효(孝)'를 통치의 원리로 삼아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일관하는 중요 기준으로 제시했음은 위에서 살펴보았다. 그 기본논리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며, 부부간에 서로 이끌고 따르고, 형제간에 우애(友愛)하면 가정이 화목하고, 화목한 가정들이 사회를 안정시키고 천하 국가를 평화스럽게 한다.'[24]는 것이다. 이는 효가 수직적이거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무호혜(雙務互惠)적 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논어』「위정편」에 맹무백(孟武伯)이 공자에게 "효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하자 "부모는 오직 자식이 병날까 걱정하는 것이다(父母唯其疾之憂)."라고 답변했고, 맹의자(孟懿子)가 질문하자 "부모님 뜻을 어기지 않는 것이다(無違)."라고 한 것도 쌍방향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 『성경』에도 "(효는) 부모를 기쁘게 하고[잠언23:25],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다[에베소서6:4]."라 하고, 불교의 「육방예경(六方禮經)」에도 "부모는 자식을 다섯 가지로 돌보아야 하고, 자식은 부모를 다섯 가지로 섬겨야 한다."라고 하였다.

효치천하(孝治天下)의 철학에도 쌍무적 구조는 기본 바탕에 깔려 있다. 『효경』은 보다 체계적으로 효와 정치를 관련시키는데, '효로 천하를 다스린다(孝理天下).'[25]고 천명하고, 천자(天子)의 효, 제후(諸侯)의 효, 경대부(卿大夫)의 효, 사(士)의 효, 서인(庶人)의 효를 나눈다. 이처럼 다섯 종류의 효(五孝)를 나누고, 그 가운데서 천자의 효를 '어버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함부로 남을 미워하지 않고(博愛), '어버이를 공경하는 사람은 함부로 남을 모멸(侮蔑)하지 않는(廣敬)' 원리를 기반으로 '덕(德)과 교(敎)를 백성에게 더하는 일'로 정의하고, 제후의 효는 "높은 지위에 있어도 교만하지 않으면, 높이 있어도 위태롭지 않고, 절도에 맞게 하고 삼가 법도를 지키면 가득 차도 넘치지 않아 능히 그 사직(社稷)을 보존하고, 그 백성과 화합하는 것"이다. 경대부(卿大夫)의 효는 '법(法)이 아니면 말하지 않고, 도(道)가 아니면 행하지 않아(非法不言, 非道不行), 능히 그 종묘를 지킬 수 있는 것'이라 하고, 사(士)의 효는 '충순(忠順)[26]으로 윗사람을 섬겨 능히 그 녹위(祿位)를 보존하고 제사를 지키는 것'이라 하며, 서인(庶人)의 효를 "몸을 삼가고 쓰임새를 절약하여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라 한다.

---

24) 『禮記』 <禮運 第九> "사람의 도리라는 것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은 어질고 동생은 공경하며, 남편은 바른길로 아내를 이끌고 아내는 유순하게 따르며, 어른은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는 순종하며, 군주는 신민을 인애하고 신민은 군주에게 충성하는 것, 이 열 가지를 인의(人義)라 한다(人義 父慈子孝 兄良弟弟 夫義婦聽 長惠幼順 君仁臣忠 十者謂之人義)."

25) <孝經序>. 昔者 明王 以孝理(治)天下也, 不敢遺小國之臣,--.

26) 以孝事君則忠, 以敬事長則順.

효는 부모를 봉양(奉養)하는 서인(庶人)의 효를 넘어, 치자(治者)의 '애경(愛敬)' '민인(民人)과 화목(和睦)', '선왕(先王)의 법언(法言)과 덕행(德行)을 준수하는 것', '충순(忠順)으로 봉직하는 것'을 지위에 따른 효의 범주(範疇)로 제시한다. 효 로서 천하를 다스리는 정치는 '엄(嚴)하지 않아도 다스려지는'[27]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면서 효 사상을 '좋은 정치', '성공하는 정치'와 연관시키는 것은 유교의 특징이다. 다른 말로 하면, 효 사상을 정치의 철학으로 삼지 않는 정치는 '엄(嚴)해야 다스려지는' 것으로, 폭력과 위협, 형벌을 앞세워 다스리는 '패도(覇道)'의 정치가 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논어(論語)』<위정(爲政)> 편에서도 '효'에 대해 많이 언급하는데, <위정(爲政)>이란 편명(篇名)은 "'효 하며 형제간에 우애하여 정치에 베푼다.'고 하였으니, 어찌 지위가 있어야만 정치를 하는 것이 되겠는가."[28]하는 공자의 말씀에서 유래한 것이다. 즉, 공자에게 효는 근본적으로 정치와 연관된 것이었다. 그리고 "무릇 효라는 것은 어버이를 섬기는 것에서 시작하여 다음으로 임금을 섬기고 마지막으로 입신(立身)하는 것이다."[29] 라 한 것도 효가 봉양에서 정치로 나아가는 각 단계를 언급한 것이다.

'입신행도(立身行道)'하여 '양명어후세(揚名於後世)'한다는 효의 끝도 '행도(行道)'하는 것이 핵심으로 정치와 연결되며, 이때 '도(道)'는 정의(正義)의 맥락에 있는 것으로 천자는 박애와 광경, 제후는 절도(節度)를 지키는 것, 경대부는 성인(聖人:先王)들의 법언(法言)과 덕행(德行)을 실천하는 것, 사(士)는 충순(忠順), 서인(庶人)은 근신(謹身)하고 절용(節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대국가에 대입하면, 대통령의 효,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의 효, 고위공무원의 효, 하위공무원의 효, 일반 국민의 효는 공경(恭敬)의 정신이라는 본질을 근본 바탕으로 삼되 구체적 행위는 정의의 맥락, 즉 행도(行道)에 있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나아가 국가는 재물과 화폐자본만을 이익으로 삼는 정치가 아니라(不以利爲利), 의(義)에 따른 신뢰자본의 축적이 국가사회의 이로움이 되는(以義爲利) 정치라는 의미로 읽을 수 있는[30] 『대학(大學)』의 맥락에서 보면, 효치는 효를 의(義)의 실천적 대강(大綱)으로 삼는 것이 된다.

즉 효치의 철학적 구조는 '수신제가(修身齊家)'와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를 연속적인 단계로 연결하고, 그 핵심 실천덕목으로 '효' 사상을 배치한다.

거처(居處)가 장중(莊重)치 않으면 불효이고, 군주를 모심에 충성치 않으면 불효다. 관직에 임하여 예의에 어긋나고 방정하지 않으면 불효이고, 친구 사이에 신의(信義)가 없으면 불효이고, 전장(戰場)에서 용감하지 않으면 불효이다.[31]

---

27) 『孝經』 <三才章第七>. 其教不肅而成 其政不嚴而治.
28) 『論語』 <爲政>. 子曰 書云孝乎 惟孝 友于兄弟 施於有政 是亦爲政 奚其爲爲政.
29) <開宗明義章>. 夫孝 始於事親 中於事君 終於立身.
30) 『大學』 <傳之十章 釋治國平天下>.-- 此謂國不以利爲利 , 以義爲利也。
31) 『大戴禮』 <曾子大孝>.

처신의 장중함, 군주와 국가에 대한 충성, 예의를 지키고 방정(方正)한 봉직, 사회생활에서의 신의, 나라를 위한 전장에서의 용감성은 상황과 지위에 따른 구체적 효의 실현이다. 이처럼 효는 개인의 수양에서부터 국가사회에서의 올바른 역할에 이르는 넓은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었다. 효 사상은 자애(慈愛)와 효도(孝道)라는 기본 구조를 갖는 가족 간의 화목과 연대를 출발점으로 하지만, 이러한 논리구조는 군주와 신하 사이의 예경(禮敬), 주인과 부하 사이의 충성과 배려 등으로 확대되어 공동체의 연대의식을 높이면서 정의와 공정(公正)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대 의식을 사회와 국가로 확장한 것이 '효치(孝治)'다.

실제적으로도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한 왕조국가에서는 '가(家)'가 조세와 부역, 군역(軍役) 등의 기본 단위였음으로 가(家)와 향(鄕=고을)의 안정된 질서유지에 효의 가치는 현실적 요청이기도 했다.

III. '효(HYO) 사상과 저출산·고령화 문제

1. 저출산·고령화 원인에 대한 진단

그간 300조원 넘는 세금을 투입해 출산율을 높이려던 정책의 결과는 낙제점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1년 처음으로 '초저출산 수준'을 의미하는 1.3명 이하로 떨어졌다. 세계은행이 2020년 기준으로 조사한 국가별 출산율을 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32]

현재 저출산의 원인 들은 거시적 또는 미시적 접근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된다. 시대적 흐름이나 가치관의 변화에서부터, 주택문제, 양육비 문제, 성차별 문제, 나아가서 수도권 인구집중과 양극화 문제에 이르기까지 넓게 걸쳐 있다. 여기서는 이런 문제들을 모두 논의할 수는 없고, 몇 가지 핵심적인 것만 지적해 두고자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명문대와 대기업에 올인하는 한국의 상황을 '황금 티켓 신드롬(golden ticket syndrome)'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명문대를 향한 집착이 교육제도를 왜곡시키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진 노동시장이 청년고용과 혼인율·출산율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33] 이것이 올바른 진단인가 하는 논의는 뒤로 미루더라도 '불합리한 제도의 개혁'과 '삶의 가치를 규정

32) 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916000291
33) <조선일보>, 2022년 9월 20일 판. 1면과 10면.

하는 문화'의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 본 원인은 대표적으로 인구학 권위자인 조영태 교수의 진단인데, 대한민국 초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집중 현상 즉, 서울 공화국 현상으로 인해 촉발된 것으로 보았다. "인구학에서는 경쟁이 격화되며 물리적 밀도나 심리적 밀도가 높을 때 생존이 힘들어지며 출산을 하지 않는다고 본다.[34]"며 " 우리나라는 모든 자원이 서울에 집중돼 있고 대학도 서울에 가야 하므로 경쟁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출산율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지방의 도시개발, 인구 이동 정책을 종합해 수도권 자원 집중과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고 한다.

미시적 관점에서 보면, 육아(育兒)와 가사(家事)를 담당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법적으로 보장된 퇴근과 육아 휴직의 사용에도 여전히 기업 눈치를 보고 있고, 유자녀 여성들은 남성들이나 독신 여성들에 비교해 승진의 어려움은 물론 해고당하기도 쉬운 것이 현실이다. 직장에서도 성공하고 싶은 유자녀 직장인들은 보육과 교육이 힘들어서 더 이상의 출산을 포기하고, 힘든 선배들을 보는 후배들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忌避)하게 된다. 출산의 주체인 여성들의 직장진출이 활성화된 현실 상황에서도 '가부장 사회'라는 남성 중심 전통의 잔재(殘滓)가 여전히 여성들을 옥죄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공통인식이 필요하다.

고령화 사회는 저출산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문제로 유소년 인구 대비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를 말한다. 그 원인으로는 첫째, 의료 기술의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평균 수명이 길어진 것이고, 다음으로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보편화되면서 독신 비율이 높아진 점과 출산에 따른 주거비, 양육비, 사교육비를 포함한 교육비 등의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율이 낮아진 것 등을 들 수 있다. 더하여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가치체계의 변화를 정치와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 것도 큰 원인이다.

고령화 사회의 진전은 여러 가지 국가 사회적인 문제들을 초래한다. 미시적으로는 노인 모두가 당면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노후 대비 부족으로 인한 빈곤과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 소외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거시적으로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노인복지를 위한 재정부담 증가, 이에 따라 노동 인구에게 과도한 부양책임이 전가되는 것 등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의 방향은 일차적으로 출산율을 올리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노령인구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설계하고 정착시키는 길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세대와 청년세대의 조화(harmony)를 추구하는 '효(孝,HYO)' 문화가 '출산장려정책의 철학적 기초'라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35] 그러면

34)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12006622650952

‘효치’의 이념과 우리 사회가 견지해 왔던 효 사상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등의 문제에 어떤 해결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까?

2. 효치의 환심(懽心)·계승의식과 저출산 극복 원리

효치(孝治) 사상에는 성공하는 정치에 관한 관점이 녹아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그 최고의 철학적 원리가 박애(博愛)와 광경(廣敬)으로 제시되는데, 어디까지나 그 바탕에는 ‘가정과 가문의 지속’ ‘국가의 지속’을 전제로 한다. 『설문해자주(說文解字注)』[36]에 의하면, 효(孝)자에 ’善事父母(부모를 잘 모시는)‘것과 ’子承老也(자식이 어른을 잘 잇는)‘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중용(中庸)』에 주(周)나라의 무왕(武王)과 주공(周公)은 ’달효(達孝)‘라고 하면서, “효라는 것은 앞 사람의 뜻을 잘 계승하고, 앞 사람의 일을 잘 좇는 것이다.”[37] 고하여 부모의 뜻이나 하든 일, 확장하여 부모 세대에 바랐던 뜻을 잘 계승하고, 하든 일은 잘 마무리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처럼 가문과 국가의 지속을 유지하는 것이 효임을 강조하는데, 자녀의 출산은 ‘영속성(永續性)’의 바탕이자 의무로 전제되어 있다. 그리고 ‘사직을 보존하고’, ‘종묘(宗廟)를 지키며’, ‘녹위(祿位)를 보존하며, 선조의 제사를 지키는 것’,‘몸을 삼가고 비용을 절제하는 것’이라는 효의 내용에는 모두 ‘가문과 선조를 계승(繼承)’함을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그 계승은 자손이 없으면 불가능하므로 ‘자손을 많이 둔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였다.

정치리더가 ‘박애와 광경의 도리를 실행하면, 사람들이 모두 그 친한 이들을 업신여기거나 미워하지 않게 되어 덕교(德教)가 천하에 널리 미치게 된다[38].’는 명제(命題)도 천하 국가의 평화적인 영속성(永續性)이 효에 의존한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특히 효를 통치의 원리로 삼는 목적이 다스림의 대상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마음(=懽心)‘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는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사람들이 환심(懽心)을 갖게 하는 구체적 방법은 옛날과 지금이 같을 수는 없으나, 정치하는 목적이 개개 국민의 ’가정의 행복‘이 출발점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현대적 관점으로 효치(孝治)를 재해석하면, 국가는 부모-자식과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 존경과 보살핌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정비하고 지원해 주며, 자녀 출산을 기뻐하며, 자녀를 통해 행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부모 세대가 아무리 손자 손녀를 기대한다 해도, 그런 희망이 자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경제적인 이유나 사회적 이유, 또는 문

35) 김종두, “효는 출산장려정책의 철학적 기초다.”『효와 복지』. 한국효단체총연합회. 2022-05-30.
36) 許愼 撰, 段玉裁 注. 上海古籍出版社, 1988.
37)『中庸』子曰 武王周公 其達孝矣乎. 夫孝者 善繼人之志 善述人之事者也.
38) <天子章第二> 注. 君行博愛廣敬之道, 使人皆慢惡其親, 則德教加被天下--

화적인 이유 등 다양한 원인을 말할 수 있으나, 가치 있는 생각과 행위를 규정하는 형이상학적 상위맥락에 이미 부모의 뜻과 혈통의 계승이라는 가치가 들어설 공간이 거의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현상은 공동체 구성원들은 물론, 국가나 사회가 다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장려나 격려의 문화를 유지하거나 형성하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하면 효의 실천이 자녀의 부담이나 국가적 손해라는 잠재적 인식을 극복하고 효의 실천이 가정의 행복과 국가의 이익에 큰 버팀목이라는 깨달음을 갖도록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효의 실천은 가정과 국가에 이익이 된다(以孝爲利).'라는 철학적 기조를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국가 경제력과 개인의 생활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는 우리 사회 효 문화의 퇴조(退潮)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Ⅳ. 효치(孝治) 사상과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방향

-가족간·세대간 연대의 복원-

1. 기본원리로서의 '광경(廣敬)', '공경(恭敬)'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 튼튼한 국가의 핵심적인 길이 효에 있다는 효치천하의 정신은 오늘의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특히 '효제(孝弟)'는 인(仁)을 실행하는 근본이라고 하면서 효의 본질을 '음식으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경(敬)'이라고 한 것은 중요한 함의가 있다.

공자는

오늘날 효라고 하는 것은 음식으로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라 말하는데, 개와 말에게도 먹이를 주어 기르고 있는데, 공경(恭敬)함이 없으면 다를 게 무엇이 있겠는가?"[39]

공자는 개인의 수양은 물론 정치에 이르기까지 '경(敬)'을 핵심적인 실천개념 또는 실천론적 출발점으로 인식한다. '군자는 경(敬)으로써 자신을 수양하고(修己以敬)', '자신을 수양해서 사람을 편안하게 하며(修己以安人)', 궁극으로는 '자신을 수양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修己以安百姓)'[40]이라 했다.

천자에서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신의 처지에서 '경'의 마음가짐을 갖고 사람과 사물을 맞이하는 상태라야 가정과 천하가 태평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출발점이 '효'라는 것이다. 효치를 내세운 왕조국가는 효와 효도를 통해 공경(恭敬)의 의미

39) 『論語』 <爲政>. 子游問孝 子曰 今之孝者 是謂能養 至於犬馬 皆能有養 不敬何以別乎.
40) 위의 책, <憲問>.

를 깨닫고 실천하여, 내 부모에서 이웃의 연장자(年長者)로 확대하고, 나의 자녀로부터 남의 자녀로 확대하는 사랑을 가르쳐 공경과 사랑의 태도를 습득하도록 교육하고 사회화(社會化)하는 것이다[41]. 그런 교육 프로그램의 교과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소학(小學)』이었는데, 쇄소응대(灑掃應對), 혼정신성(昏定晨省)하는 것부터 가르쳤던 것이 그것이다. 오늘날의 사회구성은 옛날과 달라 구체적 형식이 같을 수는 없지만, 효를 통한 공경과 사랑의 일상화가 효치의 핵심이다.

부모에 대한 공경, 부부 사이의 공경, 상사와 부하 사이의 공경으로 확대되어 크게는 천자와 신하 사이에도 '예경(禮敬)'을 말하고, 통치자의 '광경(廣敬)'을 말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경은 진정성 있는 소통과 공감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의 상태다.

공자는 거짓 없는 진심을 바탕으로 서로에 대한 공경의 일상화는 건강한 사회와 행복한 가정의 유대를 유지하는 근본이고,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근본으로 본 것이다.

부모의 자애(慈愛)는 물의 흐름과 같아 막을 수 없지만, 효와 효도는 교육에 의한 '사회화'가 없으면 전통적 관점의 '불효'는 일상화되고 가족 간의 불목(不睦)은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는 국민적 행복 지수를 떨어뜨리는 첩경이 될 것이다. 효나 효도를 왕조시대의 골동품 같은 도덕률(道德律)로 일종의 장식(裝飾)으로 생각하여 방치한다면 '효'의 사회적 규범력은 사라질 것이다.

요즈음 '삼포(三抛) 세대'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과 관련하여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을 일종의 '선진적'인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애완견을 키우는 문화가 널리 퍼진 것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 애완견을 돌보는 일 역시 많은 에너지와 경비가 필요함에도 즐겁게 그런 부담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애완견도 즐거운 마음으로 돌보고 기꺼이 경비를 부담하는데 하물며 자녀이겠는가? 즐거운 마음으로 출산하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담 없이 행복해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일까?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가족관계를 기반으로 가족, 지역공동체, 국가가 협력하여 노인과 청장년, 유소년 사이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할 수는 없는 것일까? 당위적인 주장과 도덕적 언어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효 사상의 본질이 생활 속에서 구현되게 할 수는 없는 것일까?

젊은이는 앞 세대의 경험을 존중하고, 훌륭한 점을 계승하며, 노인은 자신의 존재에 자존감을 가지고, 뒤에 오는 세대에 경험을 전수하며 자애를 베풀 수 있는 방책은 없는 것일까?

전통 시대에서 가족관계, 나아가 친족관계의 도덕적 당위로 인정되어온 '효제(孝悌)'라는 상위의 가치맥락이 변화함에 따라 그 도덕적, 사회적 영향력이 급격히 쇠퇴하고

41) 『孟子』「梁惠王 上」"자기 집 노인을 공경하여서 그 마음이 다른 집 노인을 공경하는 데까지 미치게 하고, 자기 집 어린이를 사랑하여서 그 마음이 다른 집 어린이를 사랑하는 데까지 미치게 한다. 이렇게 마음을 쓴다면 천하를 쉽게 다스릴 수 있다(老吾老以及人之老 幼吾幼以及人之幼 天下可運於掌)."

있다. 자식의 부모에 대한 '효'의 전통적 관념은 거의 해체되었고, 오늘날 부모가 노후(老後)를 자식에게 의지하겠다는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고, 특히 의지하겠다고 해도 자식들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게 되어버렸다. 이런 현실에서 국가가 노인들의 자존감이나 공경과 상관없이 효를 봉양(奉養)의 맥락에서 중요도가 떨어지는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재정을 투입하고 노인들에게 현금을 나누어 주면서 표(票)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한, 젊은 세대에 대한 설득력은 약화 된다.

오늘날 공경은 강요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독거노인의 경우는 봉양의 문제도 쉬운 것은 아니다. 고령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노인들이 국가와 사회의 짐이나 부담으로 인식되는 것이고, 자식들을 포함한 젊은 세대가 그렇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도덕적·사회적인 상황도 문제다. 아쉬울 때는 부모의 도움에 의지해도, 아쉽지 않으면 부모를 귀찮은 존재로 치부하는 풍조가 일어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다.

부모 자식 세대의 '간극(間隙)'이 크게 되면, 부모들은 '뭘 위해 그렇게 고생하며 자식들을 키웠든가?' 하면서 존재의 의미나 가치에 대한 회의가 들고, 자식들은 노부모를 잘못 모신다는 죄의식으로 도덕적 당당함이 사라지면서 행복한 가족의 본질이 훼손된다. 행복감과 자존감이 없는 가정(家庭)들로 구성되는 사회와 국가가 건강할 수 없다. 불행한 가정은 폭력과 패륜적 범죄의 온상이 되고, 불필요한 국가 사회적 비용이 증대하게 된다. 이것은 동아시아 유교권 왕조국가들이 '효치'를 내세운 중요한 이유이기도 했다.

2) 효에 기반한 출산장려 정책 추진의 방향

'봉양(奉養)', '공경(恭敬)', '계승(繼承)', '환심(懽心)'과 같은 효의 중심개념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접근해 보면, 가족 간, 세대 간의 공경, 상호신뢰를 통한 연대를 복원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전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광의의' 효행 사업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전방위적 접근을 위한 통합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운영하는[42] 중심체계를 정비하는 데는 정치적 에너지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몇 가지 대략적인 정책 방향을 찾아보면,

①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주원인이 경제적 여건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해결해야 하며, 그 기본방향은 효 가치에 기반한 가족의 소중함과 행복의 길을 알게 하는 교육으로 뒷받침하여야 할 것이다. 그 교육은 도덕적인 관념 교육이 아니라 자녀가 생기고, 그로 인해 느끼는 사랑이 곧 행복이란 것을 깨닫게 하는 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많은 아이를 출산하는 여성에게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우대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구(舊) 소련은 2차 세계 대전에서 손실된 인

42) 박희원, 앞의 논문. 18.

구를 보충하기 위해 10명의 아이를 낳은 어머니에게 모성 영웅 훈장과 공공서비스 비용 면제, 생필품이나 식료품 배급, 퇴직 연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43]했으며 프랑스도 1차 세계 대전에서 많은 인구가 손실되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1920년부터 최소 4명의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한 어머니에게 수여되는 프랑스 가족 훈장을 제정하여 출산을 장려했고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한다.

② '3포(抛)세대' 탈피를 위해서는 상당한 물질적 지원과 함께 가족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하는 가치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며, 결혼과 출산이 행복의 근원이자 가정과 국가의 영속성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임을 깨우치는 교육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초, 중, 고교 교사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고, 국가는 이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③ 국가와 사회,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을 기뻐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출산하는 여직원에게는 기업 차원에서 혜택을 주고,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출산하는 여성 직원의 숫자에 따라 세금 혜택을 주면서 유급 출산 휴가를 장려하고 국가가 보조해 주는 방법 등을 강구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특히 육아수당과 출산 휴가를 장려하고, 출산 휴가 중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이 부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 등이다. 요는 국가와 사회, 그리고 조직에서 출산을 기뻐하고 축복해 주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 효에 기반한 고령화 대책의 추진 방향- 노소(老少) 세대의 유대 강화 -

심각해진 세대 간 단절을 극복하고, 가족 간, 공동체 내의 연대 의식과 공경을 일상화하기 위해서는 효의 정신을 재해석하여 전 생애에 걸친 노소(老少) 세대의 유대를 강화하는 방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몇 가지 대략적인 대책을 찾아보면,

① 노인의 '3고(苦: 貧苦/病苦/孤苦)'를 효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빈고(貧苦)와 고고(孤苦)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가족 간 돌봄과 공동체 내 돌봄의 제도화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조부모의 '손주 돌봄(노인 일자리)' ↔ 아들 부부의 부모 봉양과 연계하거나 아파트 단지나 동 단위에서 노인단체와 학부모 단체를 연계하여 보육과 봉양을 제도화하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아기들의 보육에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다. 동 단위나 아파트 단위로 보육시설을 확보하고, 보육지도사를 배치한 다음 지역의 건강한 노인들로 단체를 만들어 순차적으로 보육에 참여하게 하고 보상을 해 주

43) https://ko.wikipedia.org/wiki. 모성영웅(러시아어: Мать-героиня 마트게로이냐)은 소련의 상훈 중 하나로, 자식을 10명 이상 낳고 길러낸 어머니에게 수여된 명예 칭호이다. 소련에서 단순히 다산을 명예로서 장려하기만 한 것은 아니고, 임산부에 대한 재정적 원조, 대가족 및 편모 가족의 어머니들에 대한 지원과 같은 구체적인 제정의도가 있었다.

는 것이다. 노인들은 대부분 자식들을 길러본 경험자들이기에 보육지도사의 관리하에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들을 쓰레기 줍는 일과 같은 일에 동원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 보육에 참여시키는 것이 훨씬 보람 있는 일일 것이다. 젊은 부모들도 한두 명의 보육사가 많은 어린이를 보살피면서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한 걱정 없이 아이들을 보살펴 주는 노인들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②노년층과 청소년 사이에 소통의 가교를 놓아, 노년층의 지혜를 계승하고, 청소년층의 자연스러운 공경을 이끌어내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을 것이다. 노인들의 역량(力量)을 활용하여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고 소통하며 존중할 수 있는 계기와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이들의 등 하교와 학원 시간에 맞추어 승하차를 도와주는 등 친(親)조부모는 말할 것도 없이 지역공동체 노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설계하고, 또 학생들에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 듣고 글 지어 오기'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일대기 만들기'와 같은 과제를 주는 프로그램도 고안해볼 필요가 있다.

'조손(祖孫) 간'의 유대와 공감대를 높이는 학습을 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역사를 이해하게 하고, 청소년의 도덕의식이나 목적의식을 고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계승'의식을 고양하고, 노인들의 자존감을 높이면서, 현실적으로는 자애(慈愛)를 실현할 수 있는 통로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중, 고교 역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서 지난 개인사와 가족사, 가문의 역사를 듣고 외국어로 문장을 만들어 제출하는 과제 같은 것을 한 학기에 두 번 정도 제출하게 하여 평가하는 것도 세대 간의 소통과 유대를 강화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가난'과 '고생', '의지', '자녀에 대한 사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던 시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넓어지고, 세상을 보는 안목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자녀를 둔 노인, 부모를 둔 자녀에게 국가와 기업이 함께, 노인과 젊은이에게 혜택이 가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농촌에 부모를 둔 자녀의 직장에서는 농번기 및 월 1회 주말 휴가를 정례화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노인들이 수령 하는 기초연금도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내지 말고, 직업이 있는 자식이 있다면, 자식이 다니는 회사나 직장 이름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족 간 유대를 높이는 방법일지 모른다. 기업의 경우 효도 휴가와 효도 수당 등을 책정하고, 이런 경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세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전해 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부모가 어린이 양육에 참여할 때는 국가가 응분의 보상을 하는 방안도 찾아서, 보육과 양육, 교육에 고령노인들의 지혜를 활용하여 부모 자식 세대의 연대를 강화하는 종합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효' 사상이나 가치가 현대 국가사회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 증진에 어떤 함의

를 갖는가에 대한 철저한 인식은 정책설계의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Ⅳ. 결어(結語)-이효위리(以孝爲利)의 철학으로-

옛날의 현명한 정치리더들(明王:聖王)이 요즘 정치인들보다 철학적 사유(思惟) 능력이나 사회 문제 인식능력이 떨어져서 '효치천하(孝治天下)'를 천명했을까? 부모의 명예를 생각하지 않고, 형제간의 우애를 돌아보지 않으며, 조직 내의 신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공동체와 국가에 충성할 수 있을까?

경제적 풍요와 자유가 넘치는 나라에서 '서로 공경하는' 예의의 문화는 사라지고 '욕설'과 '패륜'이 난무하면서 가족 간, 지역 간, 세대(世代) 간, 직역(職域) 간, 노사(勞使) 간, 이성(異性) 간의 연대 의식이 사라져가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눈앞의 이익 추구에 급급하여 공동체의 존립 기반을 위태롭게 하면서, 큰 이익을 생각하지 못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가문의 계승과 국가의 영속성을 바탕에 깔고 있는 효 사상은 과연 국가와 사회가 관심을 둘 필요가 없는 봉건시대의 가부장(家父長) 중심 윤리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오늘날의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노인 세대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나때는=라떼는'것과 같은 '개그'와 '꼰대'의 프레임 속에 집어넣어 조롱하는 등, 소통의 부재는 점점 자식 세대인 청·장년층과 거리를 크게 만들고 있다. 노인복지라는 이름으로 그냥 돈을 뿌리는 것은 자식 세대에게 늙은이는 국가사회의 '짐이요 부담'일 뿐이라는 인식을 고착시킨다.

노인 세대에게 그냥 돈 뿌리는 것으로 이익을 삼으려는(以利爲利) 정치는 견마(犬馬)를 기르는 것과 맥락이 다르지 않다. 공공일자리와 복지비, 기초연금도 자애(慈愛)와 공경을 바탕으로 하는 효의 맥락에 있을 때, 비로소 국가와 사회의 장구(長久)한 이익을 담보한다는 것이 '이효위리(以孝爲利)'의 '효치' 정신이다.

'효치천하(孝治天下)'의 정신에서 보면,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은 반드시 경제적 측면에만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출산을 기뻐하고 축복하는 문화를 만드는 구체적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해야 하고, 노인 세대의 자애와 지혜를 보육과 양육,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인 세대에게는 자존감을, 젊은 세대에게는 부담을 덜어주는 '윈-윈'정책을 구상하고 실현해야 할 것이라는 방향을 보여준다.

조선왕조에서는 '효'의 철학과 사상을 통치에 구현하기 위해서 정책적 개입을 당연하게 생각했으며, 그로 인해 정치적 안정이 유지되고, 사회적 갈등이 가정과 사회에서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었다. 이것이 부족한 자원 아래서도 상당한 인구가 유지되고, 보통 수준 이상의 건강한 가정과 사회가 존재할 수 있게 했으며 왕조의 수명을 500년이나 지속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도 뜻있는 정치인들과 단체의 노력으로 <효행장려법>과 <인성교육법> 등이 제정된 것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장기적 대책의 초석을 놓은 것이라는 의미가 크다. 노인들에게 예산으로 '돈 풀기'하는 것을 주된 고령화 대책으로 삼는 것은 '견마(犬馬)를 기르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청·장년층이 노인층을 '부담'으로 인식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노인 세대의 역량과 지혜를 존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효 사상의 실천이 궁극적으로는 가정과 국가의 이익이 된다(以孝爲利)'는 원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효 철학이 단순한 노인복지나 봉양의 의미가 아니라 '효로 천하를 다스린다(孝治天下)'는 의미를 성찰해 보면, 국가가 어떤 정신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 반성해 볼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며, 그런 반성을 통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토론문>

“ ‘효(孝:HYO)’의 정치사상과 정책문제 해결의 방향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접근을 중심으로 - ”

토론자 : 김시우 박사(성산효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Ⅰ. 논문의 내용에 대한 정리와 질문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21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이었다. 그리고 2022년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을 기록하며 최저 수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요 세계에서 거의 가장 낮은 수치이다. 이러한 결과 "한국은 저출산으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다"라는 엄중한 경고를 받고 있다.

본 논문의 발표자께서 오랜 기간 '한국 정치·행정의 역사와 유교의 관련성' 등의 연구에서 이룩한 학문적 업적과 경륜을 바탕으로 작성하신 귀한 논문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토론자는 논문 “ ‘효(孝:HYO)’의 정치사상과 정책문제 해결의 방향 -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접근을 중심으로 - ”의 내용을, 본 학술행사의 슬로건인 “효(孝, HYO)에서 국가적 현안과제 극복의 길을 찾는다.”의 관점에서 제가 읽고 이해한 것을 요약, 정리하여 특히 우리나라의 국가적 최대 현안인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반영 혹은 기여할 유효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몇 가지 질의를 하여 본 논문의 효용도를 제고하고 효 교육과 효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 논문 발표자께서 제1장에서 밝혔듯이, “본고(本稿)는 부모를 봉양하는 ‘효양(孝養)’의 효에서 ‘사랑’의 효, ‘봉사’의 효로 의미를 확장하고, 그 대상을 ‘부모’에서 확대하여 ‘부모·어른·스승’, ‘어린이·청소년·제자’, ‘가족·나라·국민’, ‘자연·환경’, ‘이웃·인류’로 확대하는 관점에 동의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광의(廣義)적 효’의 역사적·사상적 근거를 찾아보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와 같은 문제의 해결에는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고, 그러한 정책 입안(立案)의 방향은 ‘효 정신의 실천은 가정과 국가에 이익이 된다(以孝爲利).’는 철학적 바탕 위에서 구상되고 입안(立案)될 필요성이 있음을 살펴보려 한다.” 고 밝힌바, 이에 대해 본 토론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문: 향후 국가의 출산장려 관련 정치와 행정에서 효사상을 실효적으로 적용하는데 학문적 노력과 철학적 지원에 함께 해 주시기를 앙망하는 바, 선생님의 포부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2. 논문 발제자께서는 ‘효리천하(孝理天下)’의 정치사상을 설명하면서 특히 “동아시아

유교권 왕조의 역사에서 ‘효경(孝敬)’이나 ‘효양(孝養)’의 사회화에는 교육을 포함한 일정한 수준의 국가개입은 필수적이었고, 가정과 사회의 건강한 질서유지에 중요한 축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가르치지 않고 불효죄로 처벌 혹은 비난하는 것은 문제가 많음을 인지하면서 효에 대한 교육과 사회화는 정치와 행정의 중요한 방침으로 기능했다고”고 하셨다. 그리고 “유교를 국시(國是)로 한 조선왕조에서도 ‘무지한’ 백성들에게는 효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행정적 조치를 지시하고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면, 세종대왕의 『삼강행실도』의 편찬은 국가정책으로 ‘충효’에 가치를 두는 정책 기조를 실천으로 보여주는 프로젝트였다. 이는 효를 국가정책의 핵심원리로 수용한 사례인데, 효 사상을 정치의 근본 실천원리로 삼는 것은 유교권 왕조국가의 특징이었다. 특히 조선왕조에서 효와 효도는 가장 핵심적인 국가 사회적 어젠다(agenda)로 기능했다.“ 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바탕위에서, 15년 전에 입법화 되고 시행중에 있으나, 의무사항이나 강제성이 결여된「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를 국가 정책으로 강화하는데, 법률 개정이나 좀 더 구체적인 시행령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문: 한국효단체총연합회가 대 정부 건의 혹은 국회에 입법 개정 청원을 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실효적 방안이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3. 박병련 박사님께서는 ‘효사상과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논하시면서,

-효치사상에는 ‘가정과 가문의 지속’ ‘국가의 지속’을 전제로 한다. 또한 가문과 국가의 지속을 유지하는 것이 효임을 강조하는데, 자녀의 출산은 ‘영속성의 바탕이자 의무로 전제되어 있다.

-효의 실천이 자녀의 부담이나 국가적 손해라는 잠재적 인식을 극복하고 효의 실천이 가정의 행복과 국가의 이익에 큰 버팀목이라는 깨달음을 갖도록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문: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설계를 할 것이지를 예시해주신다면?

4. “ ‘효의 실천은 가정과 국가에 이익이 된다(以孝爲利).’라는 철학적 기초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국가 경제력과 개인의 생활수준이 높아졌음에도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는 우리 사회 효 문화의 퇴조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문: 효문화를 어떻게 하면 살리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박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5. “제5장 결어에서 **“이효위리(以孝爲利) 의 철학으로”**라고 논문을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효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손실보다 크다면 젊은 층이 효사상을 선호하고 결혼과 출산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것입니다.
 효가 국가와 사회의 장구한 이익을 담보한다는 것이 ‘이효위리’의 ‘孝治’가 될 것입니다.
 문: 본 논문의 국가·사회적 기여도를 고양하기 위해 특히 이익과 계산에 빠른 현대의 젊은 세대에게 ‘이효위리’ 즉 효로서 얻게 되는 이익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효위리’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혹은 산술적(digital)으로 요약을 해주신다면? 듣고 싶습니다.

6. “가정의 행복”의 개념 정의
논문 제1장 중간 부분에 “ · · · 결국 저출산 극복의 실마리는 ’가정의 행복‘이란 것으로 귀결(歸結)된다. 그런데, ’가정의 행복‘은 경제력과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하며, 본 논문에서 저자는 ‘가정의 행복’ 혹은 ‘행복한 가정’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는데, 그 ‘가정의 행복’ 이 무엇인지 그 개념 정의나, 용어의 설명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장려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젊은 세대에게 ‘가정의 행복’ 이 무엇인지? 바르게 인식 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 ‘저출산 극복의 실마리’인 ‘가정의 행복’에 대해 개념 정의나 박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7. 기타 문제 제기 :
(1) 제1장 각주 5) <조선일보>, 2022년, 9월 29일 판. A5. 尹 “280조 쓰고 출산율 0.75명, 저출산 정책 전면개편”에서 280조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논문의 1쪽 같은 페이지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투입액이 일반적으로 380원이라고 인용하고 또한 이하 본문에서도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는 데, 280조와 380조는 100조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차이입니다. 이는 원출처의 오류 혹은 잘못된 인용 또는 고증을 요하는 부정확한 금액의 단순 인용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는 380조 금액이 언론 등 모든 자료에서 자주 인용되는 숫자인바, 모호한 금액은 삭제 혹은 설명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논문의 신인도를 위해 내용의 일관성과 정확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명심보감에 “一言不中 天語無用” 상기)
 * 380조원의 보도 사례들 :
 1) 1월 출생 역대 최소에 27개월째 자연감소…尹정부, 인구절벽 해결할까, 1월 출

생아 2만4598명, 사망자 2만9686명, 380兆 투입에도 막지 못한 인구 자연감소.
(조선일보/조선비즈, 세종=전준범 기자 입력 2022.03.23. 12:00)
2) 심각한 사회 문제로 굳은 저출산·고령화가 새해에도 그 흐름을 지속했다. 정부가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해 지난 14년간 3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저출산 극복에 쏟아부은 예산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380조2000억원에 이른다.
(쿠키뉴스 원문 기사전송 2022-06-26 06:02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3)향후 10년 총인구 64만 감소…생산연령인구는 357만명이나 줄어, 15년간 380兆 쏟아부었지만...(<한경>, 노경목기자 강진규기자 정의진기자, 입력2021.12.09 17:22 수정2021.12.17 17:49 지면A3).

(2) (절 숫자 착오 표기) 원 논문 제4장 14쪽에 "2) 효에 기반한 출산장려 정책 추진의 방향"에서 2) 는 2. 로 수정되어야 하고, 15쪽의 3)은 3. 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3) 제2장 1. '수기치인과 효사상 의 중하단에 (각주 18, 213쪽) 관련) "『성경(聖經)』 특히 <구약(舊約)>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은혜에 보답하라고 가르친다." 에서 <구약(舊約)>은 <신약(新約)>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문에서 지교헌 교수가 인용한 성경구절은 모두 신약성경입니다. * 예: 에베소서 6:2, 히브리서 12:9, 에베소서 6:1, 디모데 전서 5:4은 모두 신약성경입니다.

#부록 1. 이효위리(以孝爲利)의 실증자료 (1) : 효(HYO): 인성교육의 효과 & 이로움
1. 효행자가 복받아 잘되고 2. 효행자 개인이 건강/장수하고
3. 효받는 부모님/조부모님 기뻐하시고 4. 가정의 화목과 행복
5. 학교교육 정상화(스승공경 제자사랑) 6. 직장 화합, 팀워크 팀스피리트 향상
7. 사회 건강/안정/소통 8. 사회 국가 통합, 국태민안
9. 지구촌 가족 화평(家和萬事成) 10. 인류행복(孝治世上)
11.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繼志述事)
12. 각종 범죄 비용 축소/국가예산 절감 (2008년 각종범죄 사회적 비용: 158조)
13, 자살방지 14, 학원폭력방지 15. 孝感動天
16. 다문화 가정 갈등 해소(인류一家) 17. 군부대 질서, 군기 향상
18. 애국심 고취 19. 자연사랑/환경보호 20. 세대 간 하모니 등

 # 부록 2. 이효위리(以孝爲利)의 실증자료(2): *표14 참조: (대한민국 대검찰청 홈페이지 발표) "2021범죄분석-전체범죄의 지역별 범죄발생건수 추이(2011년~2020년)"

위의 표에서 보았듯이(self explanatory),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인 법무부 산하 대검찰청에서 최근 발표한 '2021년 범죄분석' 자료 - "우리나라의 "전체범죄의 지역

별 발생비(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 건수)추이(2011년~2020년)" 에 의하면 울산광역시의 범죄발생비가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2015년~2020년(6개년) 동안 가장 낮은 지역으로 인구 10만명당 2,192.8건이었으며, 그 다음은 전라북도(3,115.7건), 충청남도(3,169.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라. 지역별[18] 범죄발생비 추이

- 2020년 전체범죄의 지역별 발생비를 살펴보면, 제주도가 인구 10만명당 4,342.5건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부산광역시 3,764.0건, 경상남도 3,694.6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발생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인구 10만명당 2,192.8건이었으며, 그 다음은 전라북도(3,115.7건), 충청남도(3,169.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지난 10년 동안의 전체범죄에 대한 발생비는 11.8% 감소하였으며, 모든 시·도별 발생비 또한 10년 전 대비하여 감소하였다.

표 14 전체범죄의 지역별 발생비 추이(2011년~2020년)

(단위 : 발생비)

지역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서울특별시	3,763.0	3,764.9	3,874.2	3,853.7	3,856.3	3,753.3	3,575.7	3,494.8	3,499.8	3,292.4
부산광역시	4,046.3	4,131.0	4,273.2	4,203.7	4,453.1	4,117.1	3,750.0	3,667.9	3,770.7	3,764.0
대구광역시	4,142.4	4,191.0	4,119.4	4,149.9	4,330.2	3,771.8	3,324.2	3,228.9	3,400.5	3,274.2
인천광역시	3,421.0	3,664.4	3,744.9	3,578.2	3,767.5	3,723.3	3,443.3	3,201.9	3,425.4	3,273.7
광주광역시	4,735.1	4,933.8	4,959.0	4,823.0	4,560.3	4,107.8	3,731.9	3,510.0	3,627.1	3,439.1
대전광역시	3,372.4	3,166.9	3,348.7	3,294.5	3,436.5	3,413.7	3,352.2	3,234.0	3,249.7	3,207.9
울산광역시	3,693.4	3,751.7	4,091.6	3,900.1	2,915.4	2,526.6	2,279.4	2,191.3	2,248.6	2,192.8
경기도	3,429.3	3,500.4	3,583.6	3,584.0	3,776.6	4,113.3	3,572.3	3,287.8	3,274.2	3,198.7
강원도	4,027.3	4,322.5	4,238.5	3,806.9	4,081.5	4,177.2	3,799.7	3,402.0	3,457.0	3,340.9
충청북도	3,380.5	3,245.6	3,299.2	3,195.2	3,679.9	3,880.2	3,571.4	3,355.3	3,362.5	3,226.1
충청남도	3,458.5	3,837.9	3,940.8	3,911.8	3,753.7	3,542.7	3,287.4	3,308.3	3,251.1	3,169.3
전라북도	3,703.2	3,892.4	3,787.6	3,349.8	3,513.2	3,346.5	3,086.3	3,067.9	3,189.4	3,115.7
전라남도	4,331.1	4,241.6	4,538.8	3,771.1	4,174.3	3,926.3	3,407.4	3,501.5	3,669.1	3,642.8
경상북도	3,664.6	3,745.9	3,922.1	3,536.5	3,691.0	3,562.8	3,308.3	3,189.3	3,304.7	3,174.6
경상남도	4,084.2	3,768.7	3,923.4	3,641.1	4,307.5	4,246.8	3,765.6	3,474.9	3,687.4	3,694.6
제주도	4,892.9	4,983.6	5,975.0	5,307.0	5,739.2	5,829.5	5,201.3	4,512.4	4,220.3	4,342.5

18 지역은 16개 시도로 구분